

시한 하루 앞 면피용 협상 테이블...타결 가능성 희박

여야 3당 옛새만에 원구성 협상 재개

20대 국회 원(院)구성 법정시한 전날인 6일 여야 3당이 공식 협상을 재개해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국회의장 자리 등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예초 여야가 약속한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지각 개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오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열어 원 구성 문제 협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2시간가량 오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나누는 뒤 오후 2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부분 공개로 행사를 바꿔 회동을 이어갔다.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의 협상 실무채널이 직접 회동하는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옛새만이다.

회동 모두에 박 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네 탓 공방을 그만해야 한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이후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도 "국가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민생에도 여야가 없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동은 별다른 진전없이 국회의장 자리와 주요 핵심 상임위원회 배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직을 맡고 국정에 필수적인 운영·법사·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위·정보위 등을 사수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는 원내 1당으로서 19대

더민주 "자율투표 논란 유감"

국회의장·핵심 상임위 놓고

입장차 여전...막판까지 진통

국회까지 새누리당 몫이었던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정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당은 기존의 여야가 분점했던 기재·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중 2개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수 없이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회의 재개 3시간30여분 만인 오후 5시30분께 정회했다가 당내 최종 입장을 조율한 뒤 오후 8시 회의를 속개했다. 그러나 입장차는 여전히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3당은 법정기한인 7일 이내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각 당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팽팽한 신경전만 벌어졌다.

특히 야당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자율투표 등이 거론되자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 야당의 '선(先)사과 후(後)협상'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5일째 중단됐었다.

이에 3당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 이날 공식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협상 전 더민주

주 박 수석부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1일 더민주, 국민의당 두당이 자율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두 당의 일방적인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켰던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과를 하며 새누리당이 다시 원 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와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새누리당

이 운영위원장의 여당 몫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선 "절대 못 주겠다"며 "절대"가 빠진 것은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20대 국회가 법정

의원일인 7일 개원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원인은 새누리당의 혼선과 더불어민주당의 과욕에서 나왔



"잘해 봅시다" 새누리당 김도읍(오른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옛새만에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이 운영위원장의 여당 몫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선 "절대 못 주겠다"며 "절대"가 빠진 것은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20대 국회가 법정

의원일인 7일 개원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원인은 새누리당의 혼선과 더불어민주당의 과욕에서 나왔

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만약 오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의당

의 입장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

하면 20대 국회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원장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점휴업 상

태가 된다. /박지경기자jzkpark@

반기문, 참여정부와 관계 회복 나섰다

반총장 제안으로 이해찬 전 총리와 내일 뉴욕회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오는 8일 미국 뉴욕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이 지난 방한에서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행보를 보인 만큼, 양측의 만남에서도 내년 대선 구도와 관련된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만남은 반 총장의 제안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이 전 총리는 미국 국무부의 초청을 받아 재단 이사인 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이 가슴

기 살군제 특위 등 5개 합의사항을 이룬

데 대해 여당이 협치를겠다고 하는데 그

런 식으로 한다면 야당은 새누리당 결

을 받아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고 비판한 뒤,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이 합의한 5개 사항과 안철수 대

표가 제안한 무노동 무임금 세비 반납도 추

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그동안 외교관을

많이 봤지만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가

지 간 사람은 없었다"면서 "외교 차원의

정치는 경제와 사회, 정책, 문화, 교

육 등 외교관계 이외에 나머지 영역에

서는 인식이 그렇게 깊지 않다"고 덧

붙였다. /박지경기자 jzkpark@연합뉴스

정국 주도하겠더니...원구성 협상 국민의당은 안 보이네

중재 못하고 존재감 없어

박지원 "7·8일 입장 밝힐 것"

4·13 총선 이후 여야 사이에서 정국을 이끄는 '리딩 파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공언했던 국민의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법정 개회일을 하루 앞둔 6일에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제3당인 국

민의당은 좀처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정국 운영에서 '꽃놀이 패'를 쥐기보다는 오히려 거대 여야 사이에 '깁' 당혹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직을 지켰대로 여야를 넘나들며 정국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본격적으로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의당이 중재할만한 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 편을 들자니 호남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우려되고, 야당 편을 들자니 제3당으로서의 차별화를 꾀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7일이나 8일쯤 국민의당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개원이 늦어지는 만큼 국민의당이 선도적 결단을 내리면서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어떠한 협상안을 제시할 것인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이 가슴기 살군제 특위 등 5개 합의사항을 이룬 데 대해 여당이 협치를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야당은 새누리당 결을 받아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고 비판한 뒤,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이 합의한 5개 사항과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무노동 무임금 세비 반납도 추진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레이저 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무출혈 / 무통증 / 무봉합 / 무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